천년의 역사를 가진

월정사 · 상원사의 문화유산

알아보기

• 상원사동종



국보 제36호



용뉴



주악비천상

신라 성덕왕 24년(725)에 주조된 것으로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동종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안동의 관풍루에 걸려 있던 것을 예종 원년(1469)에 상원사로 옮겼다고 합니다. 종의 표면에는 구름위로 하늘을 날면서 옷깃을 흩날리며 악기를 연주하는 비천상이 새겨져있습니다.

• 월정사8각9층석탑



국보 제 48-1호

고려 초기 석탑양식을 대표하는 다각다층석탑으로 고려시대의 귀족적인 불교미술의 일면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화재입니다. 전체적인 비례와 우아한 조형미를 갖춘 탑입니다.
풍탁과 머리장식인 금동은 청동으로 만들어져 금속공예의 중요한 자료가 되고있습니다.
1970년 해체복원시 1층과 5층 옥개석에서 다양한 사리 장엄구가 발견되었습니다.

탐방프로그램

일상 속에서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역사와 자연에 대해서 새롭게 바라보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무료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명	내용	장소
월정사 역사해설프로그램	월정사 사찰이해하기 및 국보이야기	월정사 경내 (1시간 소요)
상원사 역사해설프로그램	상원사에 얽힌 세조이야기	상원사 경내 (1시간 소요)
전나무숲 자연해설프로그램	전나무숲에 있는 식물이야기	전나무숲길 (1시간 소요)

참여방법 033)332-6417 http://reservation.knps.or.kr/





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ODAESAN NATIONAL PARK OFFICE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033)332-6417
상원탐방지원센터 033)333-6742
소금강분소 033)661-4161
계방산분소 033)332-6419

Nature, Our Future!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월정사

역사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과거의 일들이 조금씩 다른 형태로 바뀌기는 하지만, 끊임없이 되풀이 되고 반복되는 것이 역사이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미래의 모습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ODAESAN NATIONAL PARK OFFICE

목조문수동자좌상



조선 세조 12년(1466)에 둘째 딸 의숙공주 부부가 세조와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고자 만들었다고 합니다. 세조가 왕위에 오른 뒤 몸의 종기를 부처님의 힘으로 고치려 찾아간 오대산 상원사에서 동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문수보살을 만난 후 이를 형상화해 만들게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국보 제221호

상원사중창권선문

조선 세조 10년(1464) 상원사의 중창경위와 내역에 관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왕실의 어첩과 권선문의 2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선문은 한문과 한글로 적혀있는데, 목서로 쓰인 한글 권선문은 한글창제 당시의 서체와 표기법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국보 제292호

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유물



1984년 복장 조사시 23종의 복장유물이 발견되었으며, 일괄 보물 제793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보물 제793호

석조보살좌상



월정사8각9층석탑 앞에 있던 좌상으로 탑을 향하여 오른쪽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공양을 드리는 모습을 한 석조보살좌상입니다. 강원도 일대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형태로 "약왕보살"이라고도 불립니다.

국보 제 48-2호

석탑유물

1970년 기울어졌던 월정사8각9층석탑을 해체 복원 할 때 1층과 5층의 탑신에서 사리장엄구가 발견되었습니다.
5층에서 은제여래입상, 1층에서는 비단보자기에 싸인 사리를 발견하였습니다.



보물 제1375호

오대산은 우리나라의 가장 크고 긴 산줄기를 이루는 백두대간의 가운데 위치하고 있으며, 1,563m의 비로봉을 주봉으로 1,000m내외의 봉우리가 완만하게 이어져 있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어머니의 품속 같은 산입니다. 비로봉을 중심으로 호령봉, 상왕봉, 두로봉, 동대산 다섯 개의 큰 봉우리가 있다고 하는 설과, 동.서.남.북.중대 다섯 개의 암자가 있다고 하여 오대산이라고 붙여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탐방코스 안내

선재길 코스(편도)	
거리: 10.0km	시간: 3시간30분
비로봉 코스(편도)	
거리: 3.5km	시간: 1시간45분
상왕봉 코스	
거리: 12.7km	시간: 5시간30분
두로봉코스(상원사~두로봉~동피골)	
거리: 17.3km	시간: 7시간45분

월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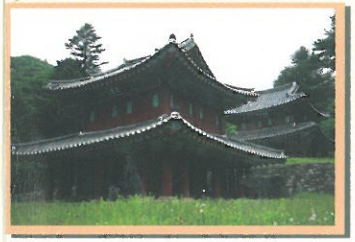
월정사는 신라시대 선덕여왕 12년(643) 자장율사에 의해 창건되었습니다. 자장율사가 중국 오대산에서 기도하던 중에 문수보살을 만난 후 신라에 돌아오자마자 문수보살이 산다고 하는 이곳 오대산에 들어와 수행하였는데, 그때부터 월정사는 오대산 깊은 계곡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상원사



상원사는 신라 성덕왕 4년(705) 때 세운 절로 처음에는 진여원으로 불리웠습니다.
본래 오대산은 신라의 자장율사가 중국 당나라의 오대산 문수신앙을 수용한 이후로 문수도량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조선시대는 태조와 세조가 거쳐가면서 상원사에는 여러 전설과 소중한 문화유산이 많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대산 사고



조선시대에 역사에 관한 기록이나 중요한 서적을 보관하던 곳으로 현재 조선왕조실록 원본은 서울대학교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6.25전쟁을 겪으면서 주춧돌만 남게 되었고 현재 건물은 1989년 이후 복원되었습니다.

적멸보궁



부처님의 진신(성골)사리를 봉안한 곳으로 뒤뜰에 사리탑이 있으며, 법당 안에는 따로 부처님상을 조성하지 않고 불당만 설치하는 것이 특징이다.